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1970년대 초반 유럽이나 북미에서 고층 아파트가 거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활발히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선 고층 아파트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만 공급되었고, 중산층의 수요는 거의 없었다. 물론 그곳에서는 우리 경우처럼 고층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 수단은 아니었다.

커피박사는 197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고층 아파트 생활이 인간의 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적·직관적인 관찰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층 아파트의 어린이는 운동 결핍으로 인해서 무기력증, 조급증, 반사회적 행위, 자폐증, 정신이상 증상 등이 나타났다. 또한 이 어린이들은 단독주택의 아이들보다 이웃 친구나 활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사회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른들과 접촉이 지나치게 많은 나머지,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신경과민적인 증상도 관찰되었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간밤엔 스르르 잠이 들었다. 별로 뒤척이는 일도 없이 늙자마자 푹어떨어진 모양이다. 사실 이사 온 첫날 밤이라선지 유독 긴장이 되었다. 잠자리가 뒹송송하면 어떡하니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인데, 아침까지 쪽 꿈도 없이 잘 잤다. 수시로 약봉을 꾸던 때와는 달리 모처럼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적어 안도감이 들었다. 꿈 없는 잠이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다. 백지에는 무엇이든 그려볼 수 있듯이.

창문을 열자 새소리가 쏟아졌다. 싱그럽고 활기찬 소리였다. 옛것처럼 집을 보러 왔을 때, 그때도 새들은 청량한 샘물을 퍼 올리듯 맑게 칠랑거렸다. 일순 마음이 환해졌다. 앞에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반겨주고... 더는 바랄 것이 없어 보였다. 매사 심사숙고가 정답은 아닐 터. 내 생전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이사를 했다. 집이 넓어서도 아니고, 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새집을 찾는 것도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아쩡 수 없는 일도 일어났다. 철부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만큼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쌓인 곳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 영원히 살 일은 없는가 보다. 우리

기고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지난 19일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에서 열린 올해 첫 물고기 위판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위판된 물고는 '급창 김'이라 불리는 '잇바다 돌김'으로 120kg 한 포대에 최고 28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위판 가격에 비해 60%가량 높은 수준이다.

가을철 전남의 선창기는 어번기로 해조류 양식을 시작하는 어업인들로 분주하다. 이처럼 전남의 바다는 어업인들의 숨결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터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핵심자원이다.

전남은 전국의 44%를 차지하는 6873km의 천혜의 해안선과 우리나라 섬의 64%인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은 전국의 43%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수도이다. 지난해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1865톤(3조 907억원)으로 전국의 58%를 차지했고, 수산 가공품 생산액 또한 1조 8772억 원으로 전국 최고이다. 이는 수산물 생산과 가공, 수출까지 수산업 전반이 전남에서 시작해 전남에서 마무리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K-FOOD의 한류스타인 '김'의 경우 전남의 수출액

건강을 위한 주택의 적정 층수

일본 도카이대의 학부 오사카 후미오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임산부의 유산·사산 등 '이상 분만' 이 저층 임산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후생성에 보고한 바 있다. 다른 조사 연구에 따르면 3세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밖에서 노는 시간을 1-2층과 8층 이상에 사는 어린이를 비교했을 때 저층의 경우가 훨씬 길었다. 또 어린이를 데리고 하루 3회 이상 외출하는 경우는 1층에 사는 가구에서 77.8%인데 비해, 4층 이상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2003년) 보고서에서는 고층 아파트(16층 이상)에 살면 항공기 탑승때와 비슷한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 지속, 울렁증·현기증, 오한, 복통, 눈 따가움, 손 저림 등을 꼽았다. 이러한 현상은 고층 아파트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 즉 어린이, 주부, 노인층에게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 결국 고층건물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문제의 원인이다. 고층 아파트 생활에서는 지상의 출입구까지 도달하는데 몇몇 장애물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된다. 예를 들면 건물 1개 층의 계단(3m)은 상하 교통과 거리감에서 약 30m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텔레비전 시청 또한 고층 아파트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킨다.

이처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층은 몇 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외국 실험에 의하면 주택이 5층을

초과하는 높이로 알려져 있다. 2층 또는 3층에서는 건물 밖까지 편안하게 걸어 내려갈 수 있으며, 창문에서 내다볼 때 가로 경관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즉 사람의 모습, 얼굴 표정, 나뭇잎, 상징 등의 세부 표정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다. 3층에서 큰소리로 외친다면 밑에 있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가 있다.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과의 의미있는 접촉은 지상 3-4층부터 눈에 띄게 감소한다. 6층 이상에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지상 층의 이벤트와 접촉이 완전히 단절된다. 건물 밖의 광경에서 시각적인 디테일은 상실되고 자신과는 무관한 독립된 세계처럼 보인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얀 겐 교수나 미국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교수는 4-5층의 주택 높이가 인간의 건강과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이상 건물일지라도 주의 깊게 설계한다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5층 이하의 주택은 정신적·육체적 건강보다 금전적 가치인 시세 차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현재와 같은 초고층 선호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 주부, 노인 등이 있는 가족이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5층 이하의 높이는 일조·채광과 더불어 정신 건강을 위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우는 별레

집을 우리보다 더 욕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말이였다. 구태여 미련을 남길 일도 없이 푹하게 돌아섰다.

세상에 잃기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았다. 아니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는 것이 인생사인 게 분명했다. 삶은 텅 빈 텀 가득 할 수도 있고 폐허에 꽃이 필 수도 있는 것이였다. 그더러 나도 정원을 거느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밖에서 보기에 삭막하고 건조해 보일 뿐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청정한 푸른 숲을 마주하게 되는 곳, 별천지가 따로 없었다.

소유나 존재나의 문제를 따져 보기 전에 먼저 나무를 만나고 새를 만나고, 그리고 숲의 능선을 따라 해가 뜨고 달이 떠오르는 풍경을 상시로 만나게 되는 곳.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몰랐으니, 나는 크게 한방 얻어맞은 것이였다.

다시 밤이 되었다. 짐들은 얼추 자리를 찾았고 어수선한 집안도 말끔해졌다. 숲은 어둠에 잠겨 있고 피곤한 나도 자리에 누웠다. 이미 첫날밤을 치른 후이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납작 누워 있는 틈으로 문득 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내가 늙기를, 아니면 모두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일까? 처음엔 소곤거리듯 작은 소리더니 이내 온 천지를 가득 채워 버렸다. 가을 밤 별레 우는 소리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던, 내내 침묵하던 것들의 소리가 저토록 크고 분명한 것이었나! 이게 정말 저 작은 것들의 소리가 맞나? 귀를 쫓긋했다.

별레들은 더 흥건히 울었다. 서로 무슨 교신이라도

하는 듯, 풀솨 낮은 곳에 은신한 전령들의 타전음이 일사불란 바지런히도 울렸다. 어떤 것은 '츠르르르 츠르르르...' 하고 울고, 어떤 것은 '찌이 찌이...' 하고 울고, 어떤 것은 '수잇 수잇...' 하고 울었다. 또 어떤 것은 '찌르르 찌르르...' 울고, 어떤 것은 '뜨르르르 뽀뽀...' 울고, 어떤 것은 '호르르...' 하고 울었다. 함께 질러대는 환희의 함성인 듯 혹은 제각기 토해내는 구구한 사연인 듯 큰소리로 우는 놈,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우는 놈, 숨넘어가듯 자지러지게 우는 놈,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소리를 삼키며 우는 놈, 자랑하듯 우는 놈, 괴로워하며 우는 놈, 원망하듯 우는 놈, 위로하며 달래듯 우는 놈, 유리결석하듯 우는 놈, 한기하게 우는 놈, 바쁘게 우는 놈, 기뻐서 우는 놈, 슬퍼서 우는 놈... 울지 않는 놈이 없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가. 저 울음도 그런 것이 확실했다. 오던 잠이 달아나고 문득 콧날이 시큰했다. 별레들은 나에게도 물어보라고 말하는 듯했다. 한바탕 울기 좋은 밤이라고, 크게 한번 울어보라고. 우리 함께 실컷 울어나 보자고 토닥이는 듯도 싶었다. 달래야 하는 울음도 있지만 울어야만 달래지는 울음도 있나니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고 소리쳐 일러주는 것 같았다. 어둠 깊고 소슬한 밤에는 우는 것도 필요한 법이라고...

나는 소리 죽여 찢은 눈을 글렀다. 저 간곡한 사랑, 정처 없는 희망을, 쓰린 기억의 들을 미아처럼 전전하였다. 그러다 슬며시 밖으로 나왔다. 바깥은 솟제 별레들의 영토였다. 쏟아지는 총성(轟聲)에 온 밤이 무르녹고 있었다. 그 밤, 나도 한 마리 우는 별레였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세계 수산을 선도하다

이 9월말 기준 1억 93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한해 수출액 1억 9100만 달러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 연말까지 역대 최고인 2억 4000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수산물 총 수출액도 2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 초과 달성했다. 전남은 제2, 제3의 K-FOOD의 한류스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원물 형태로 유통되던 전복을 가공하여 장조림, 차우더, 절편, 칼국 전복 등으로 소비량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해조류를 이용한 부각, 해조 국수, 기능성 화장품 등은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해양수산산업은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 어촌 건설'을 목표로 내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정과 어업인이 수년간 노력해 온 결과이다. 먼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해양 오염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청정어장 지정사업과 패각 자원화 및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ASC 국제 인증, 수산물 안전성 조사, 품질관리제 도입 등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

두 번째, 경제의 바다이다. 스마트 자동화를 목표로 내-해수면 양식 클러스터와 잠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를 조성하고 고효율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저온·친환경 유통체계 구축과 수산물 물류센터 조성 등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특화형 김 산업 진흥구역과 목포 대양산단의 1200억 원 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업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 공존의 바다이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

존 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섬과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여수 거문도와 신안 흑산도에 가고 싶은 K관광 섬을 개발한다. 천혜 자원인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이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갯벌과 바다, 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생태관광 대표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희망의 바다이다. 우리 수산업의 미래인 청년 어업인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장과 청년 어선 임대사업, 귀어학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미래 수산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수광양항 친환경·스마트 자동화 복합항만을 조성하고, 어선 건조 지원센터와 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구축 등 기간산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전남 수산업의 국제적인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은 우리의 해조류 양식 기술과 수산업 전반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개도국의 식량난 해소와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을 방문하여 우리 도와 KIMST, 미 ARPA-E(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의해 해조류 대량 양식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 국제 공동 기술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필자는 어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처럼 풍요로운 바다는 자연 그대로의 흐름을 유지하여 주고 깨끗하게 가꾼다면 미래 자원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전남 수산업이 세계 수산업의 중심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社說

이태원 참사 1년...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어제로 1주기를 맞았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생때같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에 머물러 있다.

이태원 참사는 비단 서울만의 슬픔이 아니다. 광주·전남 출신 젊은이들도 많이 희생됐다. 서울에서 첫 직장을 잡았던 20대 여성, 고향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했던 20대 남성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백 씨는 아들을 잃은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사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한 명 없다고 통탄했다.

유가족들이 한탄하는 이유는 사고 이후 정부의 조치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추모 공간 조성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단할 것 같은 추모 공간 조성만 하더라도

유가족협의회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불가능한 장소들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 추모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 유가족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할 텐데 그것조차 안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 1주기의 현실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정부의 기본 의무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다.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백 씨는 아들을 잃은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사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한 명 없다고 통탄했다.

정부와 여당은 1주기 추모식까지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에 나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광주 첫 복합쇼핑몰...대한민국 랜드마크로

18년간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정되면서 광주 첫 복합쇼핑몰 건립이 현실화 되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3차 공모에 단독 응모한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하듯 따른 것이다.

신세계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원조달 계획·재무능력·수익률 산정 등 사업수행 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기준점인 850점 이상을 획득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60일간 광주시와 협상을 거쳐 연내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2025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세계는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관광·레저·휴양·복합쇼핑이 가능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존 스타필드를 뛰어넘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개발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로 광주시도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업 부지인 어등산은 2005년 관광단지 개발이 시작됐지만 사업자로 참여한 지역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곳이다. 신세계는 백화점 중심의 광주신세계 확장안에 치중하고 어등산 개발사업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신세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광주의 첫 복합쇼핑몰을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당초 계획보다 상가 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공성이 강한 관광 휴양시설을 늘린 것은 그런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말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민들에게 멋진 복합쇼핑몰로 보답하길 기대한다.

無等鼓

"집 떠나야 열차 타고/ 혼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젊은 날의 생이여..." 50-60대 기성세대들에게 익숙한 노래 가운데 하나인 '이등병의 편지' 가사의 일부다. 1990년대 들국화 전인권, '영원한 가객' 김광석 등이 부르면서 일명 노래로 주목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등에 삽입되었고, 이와 맞물려 북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떠나 모든 젊은이들은 누군가의 자식인데 말이죠.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지만 그곳 젊은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이등병들,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 40주년 기념의 전시는희망가 광주시 동구 메이홀에서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우리는 전쟁 연습을 반대하고 인정과 평화를 노래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오늘의 전 지구적 상황과 맞물려 이목을 끈다. 노래를 만든 작곡자 겸 작사가 김현성 씨가 광주의 화가들과 의기투합해 개최한 전시다. 고근호, 김해성, 박문중, 한희원, 홍성담 작가를 비롯해 박남준, 임의진 시인(목사), 한보리 가수 등 내로라하는 예술가의 작품이 걸렸다.

김현성 씨는 지난 27일 이매진 도서관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주제로 단독 콘서트도 가졌다. 그는 전시장을 찾은 이들에게 목격한 올림픽 감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또한 '이등병의 편지' 못지않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명곡이다.

두 노래의 키워드 '이등병', '편지', '가을', '우체국'은 이맘때면 떠오르는 말들이다. 깊어가는 가을, 잊고 있던 친구에게 혹은 소원해진 이들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휴여 그 편지가 나비 날갯짓이 되어 이국만리 전장에 화해라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지 모른다. /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장 skypark@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